호국보훈의 달 '추모와 평화' 법석

통도사, '야전병원' 역사 되새겨
진여원, 28년째 순국선열 기려
청소년 위한 '명상 문화대전'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발원하는 법석이 이어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부산 진여원이 위령재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 데 이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과 호국정신을 전하는 명상 문화대전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 당시 전각을 야전병원으로 기꺼이 내어주며 자비와 애국을 실천했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6월 13일 설법전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제5회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하며 국난 극복의 호국불교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겼다.

이번 위령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으며 머물렀던 상이군인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추모 법석이다.

이날 법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원 원산 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전국 각지 부대의 군법사들이 참석해 영가들을 추모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 학도병 1기 박기수 씨와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해 준 김용길 씨, 고(故) 권태술 참전용사의 유가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호국영령위령단 앞에서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과 어산단이 전통 불교 의식으로 위령재를 거행하며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현덕 스님은 "통도사는 오랜 세월 국난의 위기마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국가와 함께해 온 호국도량"이라며 "육군병원으로서 전상자들의 상처를 치유했던 통도사의 동체대비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선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6월 13일 설법전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제5회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헌향을 마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반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2019년 용화전 미륵불 복장물에서 '미륵불좌상조성연기문'이 발견되고 대광명전 전각 내 군인들의 낙서 흔적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통도사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고증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 이후 매년 위령재를 열어 잊힌 역사를 발굴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고 있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2일 부산 북구 화명동 현충근린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혜총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진여원 회주)은 추도법문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기 위해 존재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호국영령들의 이타행과 헌신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보타월 봉행위원장(진여원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진여원의 호국보훈 활동 역사를 소개했다.

남 원장은 "진여호국영령위령재가 28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구청과 군부대,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진여원 가족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가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령재가 봉행된 장소인 호국영령 추모비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 428위의 영령을 모신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여원 남보타월 원장의 서원과 원력을 시작으로 지역기관과 전몰장병 유가족, 주민이 함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2년 7월 29일 건립했다.

대한민국청소년마음평화 선양회(지도법사 덕원 스님)와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김재호)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마음평화 명상 문화대전'이 6월 13일 부산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과 평화, 호국정신의 가치를 일깨우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마음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 슬로건은 '청소년, 평화를 노래하다'로 정해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 불자들이 함께했다.

덕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과 평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I시대, 시조로 민족 정신 이끈다"

제43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
대상 이경임 시인 등 6명 수상
성파 대종사 "민족 문화 동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시조 사랑으로 시작돼 43년의 역사를 이어온 '성파시조문학상'이 올해도 한국 시조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감원 서송 스님)은 6월 13일 통도선예관에서 '제43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은 6월 13일 통도선예관에서 '제43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 후 기념촬영 모습.

성파시조문학 대상은 시조집 〈나의 사소한 연대기〉를 펴낸 이경임 시인이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어 성파시조문학상에는 곽종희 시인의 〈동해남부선〉과 이경옥 시인의 〈길 위의 오답 노트〉가 선정됐다. 평론상은 배옥주 평론가이 '위험한 인식의 계보-윤금초 연작 '독의 계보' 읽기'가, 작가상은 이혜숙 시인의 〈닭의 계보를 읽다〉와 송미아 시인의 〈공생의 꽃밭〉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성파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시조 문학이 가져야 할 사회적, 민족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우리가 뜻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문학의 한 분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민족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조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인 서운암 감원 서송 스님은 "제40회부터 전국 규모로 격상된 이후 훌륭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며 시조 문학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인들뿐만 아니라 대중이 함께 시조를 즐기고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운암은 시조의 계승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제42회 성파시조백일장'을 일반부(초·중·고·대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교육 현장에 자비·지혜 등불 밝히자"

부산교직원불자, 6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서 대법회 봉행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손은주)는 6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026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직원 불자들의 원력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대법회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법성 스님(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전 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직원 불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발전과 지역 불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조선자·박명희·전정숙·최준철 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은주 회장은 "AI시대에도 학생의 아픔에 공감하고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교직원불자연합회가 교육과 수행을 함께 실천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찰서 댄스 실력 맘껏 펼쳐요"

6월 13일, 진해 대광사서
제26회 청소년 산사음악회



진해 대광사(주지 자경 스님)는 6월 13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26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대광사 산사음악회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행사로,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회주 운성 스님과 주지 자경 스님을 비롯해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상임고문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진해불교사암연합회장 송림사 지암 스님, 천자암 해초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인광사 대월 스님, 청용사 유방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와 2부·3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대광사 시라다도회의 헌다 시연과 예불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광사 반야찬불단의 찬불 공연이 펼쳐졌다.

청소년 공연에서는 K-팝 댄스팀 '이화이모션'과 '뮤즈'가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춤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산사음악회의 주인공으로 무대를 빛냈다. 3부 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박성온과 김용임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회주 운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산사음악회를 찾아주신 불자와 시민 여러분 덕분에 대광사가 밝고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찬 것 같다"며 "청소년 댄스팀의 수준 높은 공연을 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진 뛰어난 감수성과 예술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강노인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행사

6월 11일 '금강, 일상을 만들다'
원행 스님 "어르신 복지에 최선"



사회복지법인 금강(대표이사 원행 스님·정인사 주지) 산하 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은 6월 11일 '금강, 일상을 만들다'를 주제로 개관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해 회원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스에서는 업사이클링 레진아트, 치매예방 캠페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1년 동안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관이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29회 혜원 백일장 시상식 개최

6월 13일 혜원정사서…26명 수상
"글로 세상 바라보고 나 찾는 시간"



부산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는 6월 13일 설법전에서 '제29회 혜원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을 격려하며 미래 세대의 창의적 사유와 인문정신 함양을 응원했다.

혜원문화재단(대표이사 원허 스님)이 주최한 이번 백일장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운문 부문 시제는 '빛나는 순간'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산문 부문 시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살기'와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기쁨'이 제시됐다. 참가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만의 시선과 상상력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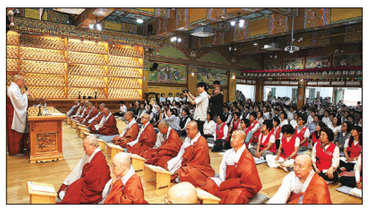
혜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총평을 통해 "수상 여부는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작은 차이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해 선택받은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AI와 로봇이 일상을 바꾸는 시대가 올수록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는 차하상 10명, 차상상 11명, 장원 3명, 대상 2명 등 모두 2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운문부문 최서윤(데레사여고 1년) 학생과 산문 부문 문예서(세연고 3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차하상 수상자에게는 5만원, 차상상 수상자에게는 10만원, 장원 수상자에게는 30만원,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연합회, 하안거 맞아 '금강경 독송'

6월 17일 내원정사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하안거를 맞아 재가 불자들과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의 가르침을 새기는 법석을 마련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17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3회 스님들과 함께하는 우리말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하안거 기간 재가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하림 스님, 부회장 정관 스님,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15개 사찰에서 3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